

(인도자용)

삶으로 말하기 5

“사랑을 쓰는 혁명”

## 마음열기

무슨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내 성향 때문에 요즘 내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 내 남편은 만족을 잘한다. 나랑 만나기 전에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재혼까지 하고 나니 더더 만족해하면서 사는 것 같다.

“아니, 어떻게 그래?”

나는 만족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되는데.

이성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나는 만족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러니 그게 너무 괴로웠다. 친절엄마 건강히 살아 계시고, 오빠와 남동생과 살갑진 않지만 어려울 때 든든하게 잘 도와주고, 아들도 딸도 사랑스럽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까지 했고, 직장도 공무원이니 40대 여성에서 이보다 좋기 힘들고, 내 살 집도 있고 등등등 만족을 넘어서 오히려 자만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괴롭다.

괴로워 할 이유가 없어서 더 괴롭다고 하면 너무 이상할까?

그런데 나의 이런 문제가 본능이란다. 그냥 인간 자체가 그렇단다. 그 유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동물”이라고 했고, 캐나다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인간에게 “만족할 줄 모르는 재능이 있다”라고 했단다.


휴우... 나쁜 이런 게 아니라니 다행이다.

하긴 인간에게 이런 본능이 있으니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겠지.

내가 최근에 주로 괴로웠던 이유는 남편을 만나고 나서였다. 힘들게 찾아 헤매던 반려자를 만났으니 이제 행복만 남은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 행복한데,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많이 괴롭다.

 위 글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최근에 “이럴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괴롭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그때 어떤 감정들이 섞여 있었나요?

 지금 내 삶을 바라볼 때 ‘잘 알고 있는 사실’과 ‘마음이 실제로 느끼는 것’ 사이의 간

극은 무엇인가요?

☞ 당신은 평소 '만족'이 쉽게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계속 새로운 목표를 찾는 편인가요?  
만족이 안 될 때 보통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예: 더 해야 해, 지금으로  
충분해 등)



나눔

**1. 아래 질문들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의미 있었던 나눔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나눔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이유나 마음 상태는 무엇  
이었나요?

☞ 왜 우리는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까요?

☞ 당신에게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사람들이 서로 돕는 행동보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행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

☞ 우리 사회에서 나눔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왜 우리는 '나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2. 성경은 나눔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래 성경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마가복음 10:35-45**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  
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원한 것은(37절)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38,43-44절)	<p>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p> <p>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p> <p>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p>

📖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시는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요?  
 ‘마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실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때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가?  
 나의 욕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가?

📖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닮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주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 적용과 결단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면 더 많이에 대한 신화를 이야기한다.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조금만 더 굳건하면,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조금만 더 권력이 있다면, 내 월급이 조금만 더 많아진다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갈 텐데...

하지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본다면, 인정을 받았던 일이, 어떤 경험들이, 더 많은 부가, 편안이, 성과들이 나를 더 많이에 대한 신화에서 해방해 주고 있는가? 아마 더 더욱 더 많이에 대한 관심으로 꼭 차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더에 관한 신화는 우리로 하여금 평생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허상일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부자가 되자"와 같은 제목의 책들을 쓰겠지만, 예수님이 현대 사회의 시장 원리에 대한 책을 쓰신다면, 그 제목은 아마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 주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제목의 책이 들어오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정력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약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포기해야할 부분들이 있는가?

예수의 희생적 사랑을 받은 당신은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지금도 주님은 자신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 부르심에 대해 당신의 응답은 어떤것인가?

